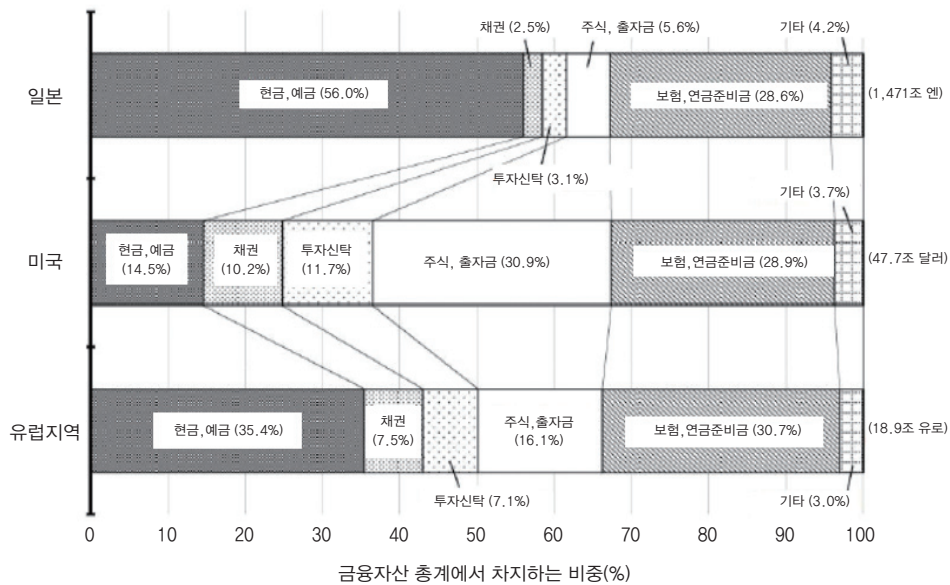


\* 한편 주식, 국공채 및 투자신탁의 보유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최근 조사에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투자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‘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음’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0%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“저축에서 투자로”라는 슬로건이 “투자에서 저축으로”라는 슬로건으로 바뀌고 있는 경제상황을 잘 반영

〈그림 7〉 일본, 미국 및 유럽 각국 가계의 자산구성



주 : '기타'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현금 및 예금, 채권, 투자신탁, 주식 및 출자금,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을 제외한 잔액 전체임.  
 자료 : 日本銀行, 「資金循環の日米歐比較」(2011년 12월 21일公表)